

보 도 자 료

제목	벨라루스의 민주주의 지지를 요청하는 재한 벨라루스인과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2021년 3월 21일 (일),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발신	벨라루스의 민주주의를 위한 재한벨라루스시민모임 (BKDB: 'Belarusians in Korea for the democracy of Belarus)과 46개 한국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발신일	2021년 3월 21일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사진부
담당자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010-5574-8925, khis21@hanmail.net

1. 벨라루스의 민주주의를 위한 재한벨라루스시민모임 (BKDB: 'Belarusians in Korea for the democracy of Belarus, [벨라루스의 민주주의를 위한 재한벨라루스시민모임](#) | Facebook)과 46개 한국 정당 (정의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벨라루스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에 지지하며, 3월 22일과 23일로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벨라루스에 대한 강력한 새 결의안을 한국 정부가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3월 19일에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3월 21일에 벨라루스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기자회견도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벨라루스의 민주주의를 위한 재한벨라루스 시민모임의 페이스북에서 동영상으로 생중계(https://fb.watch/4myVDP_E2w/)되었습니다.

2. 기자회견에 참석한 재한벨라루스시민모임은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약 30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벨라루스의 심각한 인권탄압 상황을 상징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한국어와 영어로 벨라루스의 상황을 알리고, 한국 정부와 시민들의 연대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사진과 참가자들의 발언을 보도자료로 드립니다. 이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기사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벨라루스의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벨라루스 정부의 인권탄압을 상징하는 퍼포먼스>

[벨라루스의 민주주의를 위한 재한벨라루스시민모임과 한국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3월 21일(일)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기자회견 순서:

1. 재한벨라루스모임 : 정부에 의해 구금된 벨라루스 시민들의 심각한 상황 (한국어 발언)
2. 재한벨라루스모임 : 벨라루스 정부의 변호사, 의사,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 (영어 발언)
3. 재한벨라루스모임 : 한국 정부와 시민들이 벨라루스를 위한 행동 제안 요청 (한국어 발언)
4.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낭독

○ 첫 번째 발언문

한국 시민여러분, 벨라루스의 인권 문제가 얼마나 열악한지 언론을 통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 심각한 인권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한국시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정부에 대한 저희의 호소입니다.

알렉산더 루카셴코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것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작년 여름 부정선거 후 벨라루스 상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국제사회에 권고한 것입니다. 지난 대선이 불법부정선거였다는 증거는 공신력 있는 “골로스 Golos” 플랫폼에 의한 자료 외에도, 벨라루스 역사상 가장 길고 대규모인 시민들의 시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루카셴코가 80% 지지를 받았다고 우기지만 사실 그의 지지율은 3%에 그치며, 심지어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말 4% 지지율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미국, 캐나다는 벨라루스의 대선 결과를 공식적으로 부정했으며, 수많은 국가들이 벨라루스의 평화로운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극악한 국가폭력을 꾸준히 비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도 벨라루스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국제사회 감시 하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벨라루스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때 협력에 앞서, 인권문제를 먼저 언급해 주세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는 국제기구를 포함, 벨라루스 현 정권에 대한 어떠한 재정지원도 금지해주십시오. 양국간 무역 관계는 벨라루스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이 벨라루스 정부와 무역관계를 유지하면 이는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독재자 루카셴코 정권의 폭압통치를 유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데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또한 벨라루스의 민주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기구에서 투표권을 사용해 주세요. 곧 개최될 유엔인권이사회 투표에서 강력한 새 결의안을 지지해서 국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국제적 메커니즘이 확립되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국은 첨단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국가폭력으로 고문과 부상을 당하거나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은 이들의 치료를 지원해 주세요. 신변의 안전 때문에 불가피하게 출국해야했던 벨라루스인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한국 시민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첫째: 벨라루스의 인권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위한 한국사회 투쟁의 역사를 통해 익히 배운 바 있는 민주적인 메커니즘을 활용해 주십시오. 벨라루스의 민주화운동을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고 국민청원을 하거나, 한벨의원친선협회 (Korea-Belarus parliamentary interaction group)처럼 양국 간 의회 협력 그룹에 속한 국회의원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저희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 QR코드를 통해 제공되는 웹사이트에 저희의 국내 활동에 대해 계속해서 알릴 예정이며,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공개서한에 알린 공식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항상 한국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열려 있습니다.

셋째: 벨라루스 시민사회의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벨라루스연대재단”이라는 프로젝트는 정부의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영향을 받은 벨라루스 시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BYHelp” 프로젝트는 불법구금된 시민들과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벌금, 법적 비용 및 의료 지원을 돕기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소셜 미디어에 공유해주세요. 벨라루스에 관한 뉴스를 팔로우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국의 언론과 블로거들에게도 벨라루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진실을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저희의 목소리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두 번째 발언문 (한국어 번역)

이번 주 돌아오는 25일 목요일은 “벨라루스 자유의 날(프리덤 데이 Freedom Day)”라고 불리는 공휴일입니다. 과거에는 이날 벨라루스 국민들이 한국의 삼일절처럼 독립을 축하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한 기쁨을 함께 즐겼습니다. 하지만 작년 8월 대통령 부정선거 이후 벨라루스 국민들에겐 삶의 기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 루카셴코 정권은 대선 결과를 위조하고 집회 및 언론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해버렸습니다. 현 정부당국은 부당함에 용감히 반대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을 침묵 시키려고 심각한 국가폭력, 막대한 벌금 및 수감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인 탄압을 일삼아왔습니다. 오늘날 판데믹이라는 이종고는 7여개월간 이어진 우리의 민주화운동을 더 힘겹게 만듭니다. 코비드19를 명분으로 한 모든 국경 폐쇄조치는 시민들에게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 이 어두운 절망의 터널 끝에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끈을 점점 놓치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벨라루스 시민들은 공정한 선거에 대한 기본권을 거부당했습니다. 대선 당시 제 친구들이 중립적인 선거감시인으로 자원봉사 할 때 수많은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선거 후 평화적인 집회에 참석해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국가의 얼굴을 한 경찰과 전경이 어떻게 평화적인 집회를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학살로

만들었는지 친구들이 직접 눈물, 공포, 고뇌로 뒤틀린 얼굴 표정으로 제게 전해주던 그 아픈 순간들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폭력적으로 구타당하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친구들은 어떻게 이런 잔인함이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8월 대선조작부터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벨라루스는 오랜 부정선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루카셴코 정부 초기, 전 중앙선거위원장이 불법부정선거에 항의하자 해고되었고, 갑자기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이후로 중앙선거위원회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전적인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됩니다. 2019년 독일 언론 도이체벨레는 그를 납치·살해했다는 특수부대 출신 정치망명자의 증언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존경받는 변호사단체가 선거관련 위반 사항을 25개의 두꺼운 문서 화일로 기록해 수집했고, 이 자료를 중앙선거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선거위원회는 이 모든 증거들이 “중요하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인권변호사들이 야당 활동가들과 집회 참가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대변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 정권의 노골적인 법원 절차 위반, 부당한 유죄 판결, 과대한 벌금 및 징역형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변호사들은 오히려 정부 탄압의 주요 대상이 되 버렸습니다. 한 예로, 벨라루스의 유명한 Maxim Znak와 Ilya Saley 변호사는 반역죄로 기소되었으며 현재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 명의 변호사도 반정부 활동 혐의로 변호사 면허를 박탈당했습니다.

양심적인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간 벨라루스의 경찰이 저지른 국가폭력으로 다수 시민들이 겪은 부상과 트라우마를 두 눈으로 목격한) 이분들은 매일 휴식시간에 국가폭력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특히 벨라루스 심장학의 창시자로 불리며 많은 존경을 받는 국립심장센터 (Republican National Center of Cardiology) 소장 Alexander Mrochek 박사님은 단지 직원들의 반폭력시위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보건부에 의해 해고되었습니다. 또한, 저명한 전염병 전문가 니키타 솔로 베이도 현 정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또한, 저명한 전염병 전문가 니키타 솔로 베이도 현 정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응급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 Artem Sorokin의 경우에는 경찰의 심한 구타로 사망한 아티스트 로만 본다렌코 사건에 대해 의료기록을 말한 것만으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료정보는 피해자 가족의 동의를 얻고 언론에 공개되었지만 의사 Artem Sorokin은 2년형, 이를 보도한 Ekaterina Borisevich기자는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벨라루스 당국의 언론탄압이 심각한 상황이라 독립 언론인들은 큰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프레스 조끼와 배지는 벨라루스의 언론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쉽게 식별해 체포하고 수감하는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벨라루스의 주요 독립 언론인 “투스바이”(Tut.by)는 최근 미디어 라이선스를 박탈당했습니다. 독립 언론, 벨샷 티브이 (Belsat TV)의 두 여성 언론인인 Darya Chultsova와 Ekaterina Andreeva는 작년 11월 평화적인 집회를 생중계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이런 사례들은 민주화세력을 침묵시키고자 인권탄압을 일삼는 현 정권의 범죄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많은 제 친구들도 수감의 위협을 피해 출국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벨라루스에서는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SNS)에 정부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진, 댓글, 감정표현 이모티콘 조차로도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반정부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돼버린 (흰색 & 빨간색 국기)와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입거나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체포당할 정도입니다. 우연히 산책하러 외출했다가 운이 나빠 체포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제 지인에게도 일어났기에 이런 두려움이 아주 현실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포악한 독재에 맞서 싸우는 벨라루스 시민들의 힘겨운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오늘날 벨라루스 국민들은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의 합성을 들어주시고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벨라루스 시민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세 번째 발언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벨라루스 사람들은 오늘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벨라루스에서 26년 동안 독재자 루카센코로부터 받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폭력적인 정치의 공포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는 한국 사람들의 동감과 도움을 얻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지금 벨라루스에서는 독일 나치 시절에나 있었던 독재자가 국가권력을 잡고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유린하는 실정입니다. 독재자에 의해 매일 벌어지는 고문, 살인 때문에 우리의 아름다운 벨라루스는 피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비극의 책임자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벨라루스 대통령직을 26년째 연임하고 있는 루카센코 현 대통령입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벨라루스 사람들은 참다못해 작년 불법적인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벌써 8개월 동안 평화적인 시위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으며 독재자 루카센코가 장악한 꼭두각시 경찰의 폭력과 협박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시민들을 폭행을 할 때 자기 얼굴들이 보이지 않도록 복면을 씩습니다. 그래야 양심의 가책도 덜 받고 또 시민들의 복수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독재자 루카센코와 그가 장악한 경찰은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가두면서 그들을 정치범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정치범이라는 명목으로 290명의 무고한 시민이 체포되어 구금되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니까?

지난여름에 대선에서 참가했던 후보자들. 대선을 시작하기 전에 벨라루스 국민들에게 가장 인기를 끌었고 풍요롭고 자유로운 벨라루스를 원했던 후보자 3명이 독재자 루카센코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었고 특별한 죄명도 없이 아직까지 교도소에 있습니다. 대선 운동에 참가한 다른 후보자나 많은 정치인들은 다른 나라로 망명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나이, 성별, 지역 구분 없이 변화와 자유를 갈망했던 모든 벨라루스 인들은 독재와 폭력을 반대하며 평화로운 시위에 참가했고 오늘도 독재정권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은 무시당하고 범죄자 아닌 평범한 시민, 기자, 의사, 노동자, 학생, 예술가들이 체포 되거나 고문당하거나 터무니없는 고액의 벌금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시민의 죽음을 알리려던 여성 기자 2명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변해버린 법원으로부터 2년짜리의 형기를 받고 교도소에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지금 진실을 알려주는 기자들한테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서 그 무서운 진실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한국인에게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벨라루스 사람들 1379명이 폭행을 당했고 그들 중에서 절반은 경찰서 안에서 구타를 당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벌써 8명의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고 아직도 그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범죄사건에 관한 검찰 조사는 8개월이 지났어도 시작도 되지 않아서 살인자들이 길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습니다.

대선 날 이후 3일 만에 평화로운 시위에 참가했던 벨라루스 시민들 5000 명 이상은 체포되었고 그들 중에 250명은 총이나 폭탄, 경찰봉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들은 체포된 시위자들에게 굴욕감을 주며 물감 스프레이로 얼굴, 손, 옷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많은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나 경찰서 안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경찰서 밖에서 자기

남편, 아들, 딸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못 들을 정도로 끔찍한 고문 소리를 들었습니다. 벨라루스 남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구타, 고문,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평화로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실을 평화적으로 법적으로 얻으려고 했지만 벨라루스의 법은 독재자 한사람만을 위한 법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헌법은 이름으로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와서 내일과 모래에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벨라루스에서 일어났던 무고한 시민에 대한 고문과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하기를 강력히 호소합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벨라루스에는 5000명 가까운 무고한 시민들이 단지 독재자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있습니다. 벨라루스 동포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봐주십시오. 우리는 벨라루스의 비극을 잊을 수 없고 이러한 비극을 초래한 독재자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사람으로도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들 많다면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변화가 더 빨리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유 벨라루스 시민들은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 46회 유엔인권이사회 벨라루스 결의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벨라루스의 민주주의를 위한 재한벨라루스시민모임 (BKDB: 'Belarusians in Korea for the democracy of Belarus)입니다. 저희는 3월 22-23일로 예정된 46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이 새로운 벨라루스 결의안을 지지하길 호소합니다. 벨라루스의 인권상황은 올해 2월과 3월에도 심각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대선부정이라 벨라루스 정부가 저지른 각종 심각한 인권침해의 연속입니다. 이런 악화된 상황으로 인해 유엔인권이사회와 한국 같은 회원국들의 행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밝히고 책임을 지게 하는 이 새로운 메커니즘은 현 인권위기 상황에 꼭 필요합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보고서는 현 상황을 “벨라루스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인권위기”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은 새로운 선거의 필요성을 논하거나, 정부와 조금이라도 다른 정견을 표현하는 시민들을 계속해서 탄압하고 있는데, 특히 인권활동가들, 야권 정치인들, 언론인들, 노조원들, 변호사들, 학생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아왔습니다. 일부 공론화된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두 명의 여성 언론인들이 지난 11월 평화로운 집회를 취재했다는 이유만으로 2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벨라루스 경찰은 대내외적으로 존경받는 벨라루스의 대표적 인권단체, 비아스나 (Viasna) 사무실 두 곳, 벨라루스 언론인협회의 본사, 독립벨라루스라디오&전 자업계노조 (REP) 본사를 급습하여 수색하였습니다. 지난 몇 주간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인권활동가 및 언론인, 가족들은 모두 40여명이 넘습니다. 보안당국은 유엔과 함께 활동해온 단체들도 공격했는데 특히 유엔의 긴밀한 협력기구, 장애인권리사무소 (ORPD)는 현재 조작된 경제범죄로 기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동 단체의 대표는 가택연금에 처해졌고 변호인은 재판 전 구금상태입니다. 이는 장애인권리사무소의 인권활동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보복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울러, 벨라루스 정부가 이미 수감 중이거나 구금상태로 재판을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의약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변호사 선임을 거부한 비인도적인 사례들을 다수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안당국은 심지어 활동가의

가족들에게서 핸드폰, 컴퓨터, 신용카드, 현금 등을 압수함으로써 이들의 최소한의 생계수단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현지 인권단체와 언론사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8월 부정선거이후 3월 14일까지 최소한 4-8명의 시민사망이 추정되고, 285명의 정치범이 수감되었으며, 공식으로 집계된 고문사례만 무려 450건에 달합니다.

벨라루스는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의 회원국이 아닌 관계로 현 인권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이런 노력을 지지하고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시민들의 행복하고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민주주의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26년간의 악명 높은 공포정치로 인해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립니다.

군사독재를 몸소 겪은 한국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저희의 힘겨운 상황과 싸움을 잘 이해 하시리라 믿으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공개서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혹시 앞으로도 벨라루스의 인권침해 상황에 정보를 원하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belarusinkorea@gmail.com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3월 21일

'벨라루스의 민주주의를 위한 재한벨라루스시민모임 (BKDB: 'Belarusians in Korea for the democracy of Belarus) 및 이 공개서한에 동의하는 46개 한국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고양시민회/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 행동/국제민주연대/권리찾기유니온/
나눔문화/난민인권센터/녹색당 본부/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모임/미국 애들란타 사람사는 세상/미주지역 5.18 광주
민중항쟁동지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부산 그린
트러스트/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사단법인청년김대중
창립준비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생명안전
시민넷/세계시민선언(사)사람예술학교/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알맹/예하운
선교회/이재명을 지지하는 해외동포모임/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인천기본소득포럼/전국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전국목회자정의평화
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두환심판국민행동/정의당/정치하는엄마들/제로웨이스트
홈/진보3.0/참여연대/충남 녹색당/캐나다 노바 벨리 한인회/캐나다 노바스코시아
호남향우회/캐나다 에드먼튼 희망실천 네트워크/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해외주민운동연대/형명재단/호주 멜버른 평화의 소녀상 위원회
(가나다 순)

Open Letter of Belarusians in Korea for Democracy in Belarus and & Korean Civic Society to MOFA.

ATT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South Korea

RE: We request your support for the vote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regarding resolution on Belarus.

We (BKDB: Belarusians in Korea for the democracy of Belarus) call for South Korea to support the new resolution on Belarus at the upcoming 46th session (March 22-23)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Belarus's human rights situation has significantly deteriorated in Feb and Mar this year (see below). This follows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e authorities committed regarding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These alarming new developments require action by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nd participating states like South Korea. A new mechanism to help identify perpetrators and hold them accountable needs to be established to deal with the current human rights crisis.

The High Commissioner's report describes "a human rights crisis of a magnitude unprecedented in Belarus." The authorities continue to persecute people who have expressed any disagreement with them and talked about the need for new elections. Citizens, including opposition politicians, activists, journalists, trade unionists, lawyers, students are being targeted. Here are some specific cases that are known to the public.

This year alone, two women journalists were sentenced to two years in prison for documenting peaceful demonstrations in Nov 2020. Belarusian police forces raided and searched the two offices of the highly-respected Human Rights Center, 'Viasna,' the central office of the Belarusian Association of Journalists and the central office of REP, the independent Belarusian Radio and the Electronic Industry Workers' Union. In total, more than 40 human rights defenders, journalists and their relatives were affected by police searches in the past few weeks. Authorities also targeted the organizations that work with the UN. In particular, ORPD (Office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 close partner with the UN is currently under criminal investigation on trumped up charges of financial crimes, as retaliation for the group's human rights work. Its director is under house arrest, and its lawyer is in pre-trial custody.

In addition, there are widespread reports of violations of the rights of those who have been held in custody awaiting the trial or imprisoned. These include being denied medical help and access to legal representatives. Security forces seized the phones, computers, money, credit cards of the family members of the activists, which often left them with no means for existence. According to local media & NGOs, we have an estimated number of at least 4-8 deaths and 285 political prisoners, 450 documented reports of tortures since the problematic presidential election last Aug.

Belarus is not a member of the Council of Europe. Therefore, the UN Human Rights Council should show leadership for dealing with the urgent human rights violations in Belarus. We would greatly appreciate it if South Korea could support the effort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in this matter. Belarus's president Alexander Lukashenko is called "Europe's last dictator" for his 26-year-old terror. We believe that Koreans who experienced military dictatorship understand our hardship and struggle very well and agree that only democracy allows its citizens to live fulfilled lives. We sincerely hope you take this matter seriously.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You are welcome to contact us, should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about the human rights violations in Belarus. (belarusinkorea@gmail.com)

2021, March 21

Signed by Belarusians in Korea for the democracy of Belarus and 46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1. 5.18 Gwangju Uprising Memorial Association (USA & Canada)
2. Activists group for Human Rights 'BARAM'
3. Asian Companions Against Brutality(A.C.A.B)
4. Atlanta SaSaSe
5. buddhist ecological contents institute
6. Busan Green Trus)
7. Canada Edmonton Hope Network
- 8, Canada Nova Scotia Honam Association Community
9. Canada Nova Valley Korean Association
10. Dasan Humanrights Center
11. FreeCIS
12. Goyang Citizens Association
13. GREEN PARTY chungnam province
14. GREEN PARTY KOREA
15. House of Precarious Workers: "GGulljam"
16. Hyungmyung foundation
17. Incheon Basic Income Forum
18. Incheon Ecology Lab
19. International supporters group for LEE Jae-myung,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20. JKM ministry
21. Justice Party Korea
22. KMWU. Ssangyoung
23.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24. Korean New Zealanders for a Better Future
25. Korean Solidarity against Precarious Work
26. Korean Solidarity for Overseas Community Organization
27. LIFE & SAFETY NETWORK
28. Melbourne Comfort Women Memorial Task Force
29.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30. NanumMunhwa
31. National Clergy Conference for Justice and Peace
32. NCKK Human Rights Center
33.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34. Political Mamas
35. Progressive Korea
36. Progressive3.0
37. Refugee Rights Center, NANCEN
38. SARAM School of Art
39. Socialist Revolutionary Workers Party
40. Solidarity for Another World
41. The Committee of MV Stellar Daisy
42. The Declaration of Global Citizen
43. The National Action Against Dictator Chun Doo-Hwan
44. Unioncraft
45. Youth of Kim Dae-jung foundation

46. Zero Waste Home